100년의 시행착오 거쳐 세계적 관광 명소로

- 미국 샌 앤토니오시의 강변 산책로, 청계천 복원 이후 하천 관리 '大計'의 他山之石 -

미국 텍사스주 남부에 위치한 샌 앤토니오(San Antonio)시는 인구 규모 107만명으로 미국 내 8번째 도시이다. 군수산업을 기반 산업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손꼽아 주는 관광과 컨벤션의 도시이다.

미국과 멕시코가 텍사스를 놓고 전쟁을 치르던 1836년, 멕시코군 6,000명이 포위 공격을 할 때 189명의 미군이 최후의 한 사람까지 격렬하게 저항하다 13일 만에 함락된 알라모 요새가 시가지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길었던 스페인과 멕시코 통치 시대를 반영하는 콜리니얼풍의 문화재들이 시가지에 산재해 있다. 이러한 역사 자원과 더불어 시내를 관통해 흐르는 샌 앤토니오강 역시 시의 중요한 관광 자원이다.

샌 앤토니오시의 강변 산책로

강변 산책로(riverwalk)는 시내 최중심부를 관통하는 샌 앤토니오강 양변에 조성된 보행자 전용 도로이다. 산책로를 연결하는 31개소의 석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산책로 주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카페, 레스토랑, 토산품 상점, 소극장 등의 오락 시설, 호텔과 쇼핑센터, 컨벤션 센터 등이 입지하여 세계적으로 이름난 체류형 관광 도시인 샌 앤토니오시의 명성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강변 산책로에 연결된 쇼핑 센터와 컨벤션 센터를 경유하는 선상 보트 여행을 즐기면서 굽이치는 강변 녹지에 산개된 다양한 형태의 오픈 카페들이 연출하는 도시 경관은 매우 특이하며, 돌로 포장된 도로 위에 넘치는 인파들은 지중해변의 유럽 도시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강변 산책로 조성의 연원은 1720년 시작된 스페인 식민 시대의 관개 수로 정비까지 올라간다. 1845년 텍사스가 미연방에 가입하면서, 급격한 인구 증가를 경험하게 되는 샌 앤토니오시는 건천화와 홍수 조절 능력을 상실한 샌 앤토니오강의 매립을 둘러싸고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에 휩싸이게 된다.

강의 보전 또는 매립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들로 구성된 하천정비협회가 설립된 시기는 1911년 9월이었다. 매립을 주장하는 상공회의소 사람들과 보전을 주장하는 여성 단체 간의 20여 년에 걸친 열띤 논의는 1929년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역 건축가였던 허그맨이 발표한 리버워크 구상안을 채택함으로써 끝나게 된다.

이후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배분된 36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과 강변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해 100달러당 1.5센트씩 부과한 부동산 개발세 수입, 그리고 7만 5,000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자금으로 샌 앤토니오시는 하천 정비 사업에 착수하였다. 1941년 3월 강변 산책로 공사는 허그맨의 구상대로 거의 완성이 되었으며, 동년 4월에는 프로젝트의 완성을 기념하는 성대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가 지금은 연례 행사로 발전한 샌 앤토니오시의 최대 이벤트 '피에스타'이다.

샌 앤토니오시의 강변 산책로 조감도.

100년간 하천 정비, 연간 천만명 찾아와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샌 앤토니오시의 강변 산책로는 시민들의 외면을 받게 되었다. 강변 산책로는 황폐해졌으며 부랑아들이 머무는 장소로 변해 있었다. 1946년 10월에는 4명의 시민들이 강물 범람의 희생자가 되었다. 이에 홍수 관리 특별세가 신설되었으며, 이 재원을 근거로 샌 앤토니오강의 홍수 관리를 위한 공사들이 전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변 산책로는 좀처럼 활기를 찾

샌 앤토니오강 개선 사업의 기대 효과

구분	사업 내용
환경 개선	· 직강 하천을 꾸불꾸불한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 · 콘크리트 하안 석축 제거 · 7개소의 소형 댐 건설 · 북쪽 구역에 야생 서식지 조성 · 강변에 수목 조성
경제 개발	보행자 도로 신설과 유람선 운항을 통한 강변 부동산 가치 제고
레크리에이션 증대	13마일 연속적인 보행자 도로(자전거 도로)와 강변 선형공원 조성을 통한 새 사냥, 조깅, 자전거, 카누, 카약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 지원
문화 연결	유람선 운항 수로를 통해 San Antonio Museum of Art, White Museum을 연결

자료 : http://www.sanantonioriver.org/benefits.html.

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된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본격적인 강변 산책로 활성화 정책이 재개된 계기는 1963년 개최된 도시 창립 25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건설된 컨벤션센터 건설과 관광 유람선의 도입이었다. 컨벤션 센터의 건설과 관광 유람선의 도입은 강변 산책로 인근에 호텔과 사무실 빌딩의 건설을 촉진시켰으며, 샌 앤토니오시가 오늘날의 컨벤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 전기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다가 1970년대 시 정부와 시민들 간의 협력을 통해 알라모 요새와 강변 산책로를 연결하는 보도가 건설되었으며, 수문 개량을 통해 관광 유람선의 일주 운항이 가능하게 되었다. 1981년 하얏트 리젠시 호텔, 메리어트호텔과 대형 고급 쇼핑몰인 리버센터가 샌 앤토니오강의 강변 산책로를 따라 문을 열었다. 미 대륙의 남서부 한구석에 위치하고 있고 그럴듯한 지역 중심 공항도 없으며 유명 대학도 없는 지방 도시이지만, 샌 앤토니오강과 강변을 보전하고 활용하려 했던 100년 간의 노력의 결실로 샌 앤토니오시는 현재 디즈니랜드에 필적하는 연간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으로 북적거리는 컨벤션의 도시가 되었다.

직강형 하천을 자연형으로

현재도 샌 앤토니오시는 10개 년에 걸친 샌 앤토니오강 개선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홍수 조절과 지역의 레크리에이션 및 경제 개발을 목표로 전개되고 있는 개선 사업의 내용은 예전의 직강형으로 정비된 하천을 꾸불꾸불한 자연형 하천으로 바꾸는 것과 하천 양안의 잔토 부지에 대한 선형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1998년 22명의 시민 대표와 지역 지도자로 구성된 샌 앤토니오강 관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개선 사업의 제반 감독(계획, 디자인, 프로젝트 관리, 건설, 기금 마련),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매달 시장과 건축가 간의 정기적인 회합을 주관하고 있다.

독일의 엔즈강 하천 복원 사례.

친근한 청계천 … 오랜 세월 필요해

샌 앤토니오시의 하천 관리 사업을 살펴보면, 하천 관리를 둘러싸고 시와 시민들이 100년간의 시행착오를 거듭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직강형으로 정비되었던 하안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있으며, 관리 부실로 1941년 정비된 강변 산책로는 몇 년도 채 지나지 않아 부랑아들의 숙소로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강변 산책로 인근에 다양한 상업 문화 시설의 건설과 연계만이 강변을 제대로 보전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100여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22명의 시민 대표와 지역 지도자로 구성된 샌 앤토니오강 관리위원회가 결성되어, 시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 역시 하천 관리의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만한 대목이다.

미국 샌 앤토니오시의 하천 정비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복원된 청계천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친근하게 다가서기까지는 100년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오랜 세월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다. 복원된 청계천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면, 청계천 역시 시민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은 복원된 청계천을 따라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이 고려된다면 언젠가 나무가 우거진 청계천변을 따라 물과 바람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울의 역사에 흠뻑 취해 거리를 거닐고, 산책로 주변에 올망졸망 늘어선 느긋한 카페에서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을 날이 오지 않을까?

정창무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